

우리이웃

제 44호

좋은글

- 봄빛은 인연을 만들고

여는글

- 듣는 것도 힘이다.

이달의 인물

- 마음으로 듣고 보는 헬렌켈러

정보마당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입니다.

-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 아름다운 사람들

건강정보

- 여름철 식중독 예방
- 삼복더위야, 썩 물렸거라!

우리이웃 게시판

- 「사랑의 삼각 끈」의 행복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Asan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Center for Disabled Person

315111 충남 아산시 변영로 115번길 20-14 LK빌딩 2층
TEL: 041-541-1514~5 FAX: 041-541-1516
<http://www.asvcc.or.kr>



봄빛은 인연을 만들고

장미숙

너를 만나기로 한 그날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눈부시고
흙 내음은 코를 간질였지

너를 만나기로 한 그날
걸음은 하늘을 날 듯 시원했고
마음은 종달새처럼 바람을 날고
가슴은 염치없이 두방망이질 쳤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온 산이
온 하늘이 다 내게로 왔지

너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치지게 했고
열정에 빠뜨리게도 했지

쉬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종일 풀 쏘을 헤치고
부지런히 이슬을 밟곤 했지

청보라빛 고운 날개에
흙 내음 가득 품고
말없이 요염하게 앉아 있는 너

제비꽃무리
내 사랑이라 불러도 될까

듣는 것도 힘이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소장 이선섭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한다. 자기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이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집중해서 들어라 :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지치는 일이다. 그래서 종종 남편들은 “할 말이 있다”는 아내에게 “피곤해”라고 응수한다. 하지만 이 때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야 아내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앞으로 서로의 대화가 가벼워진다.

▣ 맞장구도 기술이다 : 들은 이야기의 요점을 짚어서 짧고 명쾌하게 맞장구를 쳐라. 이왕이면 상대가 쓴 어휘를 그대로 쓰면 더욱 좋다. 자기 어휘를 다시 들으면 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정말 놀랐어”라는 말에 “그래? 혼비백산 했구나”라는 다른 표현의 맞장구를 치자면 상대는 자신이 겁쟁이로 보였다고 여길 수도 있다. 반면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나 자기 목소리를 싫어하는 상대에게는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게 좋다.

▣ 침묵으로 사이를 뒤라 : 대화 사이 사이의 침묵은 상대가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물론 시간에도 서로 마음속 대화는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 상대가 다시 말을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기다려라. 이 시간은 본인이 느끼는 것만큼 그리 길지 않다. 듣는 사람이 사이 두기를 견디지 못하면 심각한 이야기도 우스꽝스럽게 변하기 쉽다.

▣ 피뢰침 같이 불평을 빨아 들어라 : 듣기의 달인은 번개를 잡아내는 피뢰침 같아야 한다. 피뢰침은 번개를 피하지 않고 빨아들여 밖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 누군가 찾아와 당신과 함께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라. 그리고 잊어라. 상대 감정을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쌓아두면 본인도 괴롭지만 불만을 털어놓은 사람도 곤란해 한다.

▣ 개방적 사고로 들어라 : 말머리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그러나’와 ‘하지만’을 빼라. 듣기는 배구의 토스와 같다. 상대가 받기 쉽도록 공을 보내줘야 좋은 공이 오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반론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더 애써라.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해 안달이 난다면 당신은 벌써 훌륭한 듣기에 실패한 것이다.

(참고 : 《듣기의 힘》, 모색)

마음으로 듣고 보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일생을 농아와 맹인을 돕고, 사회주의 지식인으로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도 기여 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생 후 19개월 때 앓은 뇌척수막염으로 하루아침에 시력, 청력을 잃어 언어장애까지 갖게 됩니다. 여러 병원들을 다니며 치료를 시도했지만, 시신경이 모두 죽은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맹인학교를 추천받고 가정교사로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은 그녀의 손바닥에 수화 알파벳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후두에 손가락을 대어 헬렌에게 진동을 듣도록 하며 말하는 법을 익히게 하였다.

설리번의 지속적인 지도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헬렌 켈러는 1904년 래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시청각장애인이고, 여성 참정권론자이자 평화주의자 입니다. 헬렌 켈러는 대학을 졸업한후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 자유 인권 협회(ACLU)의 설립을 도왔으며,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그중에는〈나의 삶 The Story of My Life〉(1902) · 〈헬렌 켈러의 비망록 Helen Keller's Journal〉(1938) 등이 있다.

앤 설리번의 가르침을 받았던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은 윌리엄 김슨의 희곡 〈기적을 일으킨 사람 The Miracle Worker〉(1959)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희곡은 1960년에 풀리처 상을 받았고 1962년에 영화화되었다.

2023년도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제도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이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 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09.0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 되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춤춤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추진배경 :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 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재가)4만원, (시설) 2만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출처 : 보건가족부)

2023년도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제도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주1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23.4월~)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 됩니다.

*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 (△56 ⇨ △22)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56시간



'23	주간활동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22시간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 ⇨ 66시간)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 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2.5만명 ⇨ 3만명)
-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6.9만명 ⇨ 7.9만명)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 ⇨ 25만원)됩니다.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 ⇨ 930시간)합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1월부터 12월까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직접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성인형극 “우리는 소중한니까”

아산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인형극 공연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폭력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요청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충청남도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4월부터 12기관에 120회의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단상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심신이 회복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도록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독서치료

매주 한권의 도서를 선택 하여 읽거나 들은 후에 토의 및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이끌어 내도록 진행하였다.



디지털 교육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맥도날드, 다이소, 버스표 구매등 다양한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성·가정폭력 피해 가정 지원 지역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지역의 전문활동가를 양성하여 폭력피해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피해가정에 지속적인 방문상담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짝 반짝 네일아트

다양한 컬러를 이용한 특별한 색감 활동과 함께, 나에 맞는 컬러를 찾고, 꾸미고 변화를 주며 변화된 나의 모습에서 작은 힐링을 하였다.



리듬에 맞춰 “라인댄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신체와 근육의 긴장 및 이완 조절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라인댄스를 진행하였다.



제15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4·9캠페인

행동하지 않으면 차별, 성평등 시작은 나로부터 슬로건 아래 여성장애인이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를 하였다.



제4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어울림 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차별없는 세상·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 근절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신나는 레크레이션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즐겁게 음악과 웃음속에서 진행되는 레크레이션은 일주일의 피로를 풀어주며 활기를 더해주기도 한다.

나만의 예쁜글씨 캘리그래피

붓과 먹물을 이용해 손의 힘 조절을 배우고, 붓의 섬세함을 이용해 예쁜 글씨를 써 봄으로써 손으로 그리는 개성적이며 아름다운 나만의 손 글씨를 만들어 본다.



장애 방과 후 아카데미

학습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한글과 수를 기본으로 하는 기초학습을 개별 눈높이에 맞추어 그룹 단위로 또는 1대1로 맞추어 수업을 하고 있다.



스포츠 DAY

장애인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데이 행사에 참여를 하여 다양한 스포츠와 전통 놀이 체력증정등을 경험하고, 버블쇼와 한복 패션쇼 관람을 하였다.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충청남도 장애인 33쌍의 부부가 화촉을 밝혔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란다는 주례사와 함께 행복한 행진을 축하해 주었다.

사회적응훈련 - 키오스크



다양한 종류의 키오스크 사용을 익힌후 직접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구입한 햄버거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생일파티 - 생일축하합니다~~



매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날~ 내가 태어난 날 감동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생일잔치를 하며 서로 축하해 주었다.

지역활동가 사례회의 · 간담회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통해 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욕구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올바른 대화와 갈등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름다운 사람들

올해도 저희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에는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본 기관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 봉사를 해주신 아름다운 선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방 싱크대 교체 지원사업



지난 5월 19일 금강쌍크공장에서 「사랑의 주방 싱크대 교체 지원사업」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금강쌍크공장 임연숙 대표님께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되어 뜻깊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에서는 아름다움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보살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상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소에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아산 희망봉사단에서 지난 6월 14일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상담소 이용자가 깔끔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배를 교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세균성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중독 환자는 7~9월 여름철에 35%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식중독 발생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요즘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이 확인된 사례 중에는 부주의하게 제조된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 음식이 많았습니다. 여름철 채소류는 세척 후 냉장보관하거나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량으로 채소류를 조리 할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가량 담갔다가 2~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행군 다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달걀로 인해 살모넬라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달걀을 만지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 오염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살모넬라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 닭 등 가금류를 만진 후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은 다음 조리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할 때는 75도에서 1분이상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한 환경에서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퍼프린젠스균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제육볶음이나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 실온에 내버려 두면 퍼프린젠스균이 음식에 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퍼프린젠스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 하려면 열로 조리한 뒤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구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소분해 빠르게 식힌 다음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 먹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부도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급식시설을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모넬라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달걀 취급업체를 점검하고 유통된 달걀을 수거·검사할 예정입니다.

[출처]이른 무더위 식중독 주의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아보기 |작성자 정책주간지 K공감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익혀 먹기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끓여 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

삼복더위야, 썩 물렀거라!



여름철 보양식 / 삼복엔 탕 하나쯤 먹어줘야 여름 더위를 견딜 것만 같다. 하지만 복날 특별한 음식을 해먹던 이유를 이해한다면, 이젠 새로운 웰빙 보양식을 즐길 때다!

환절기나 여름,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흔히 보양 음식을 찾게 된다.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등 예로부터 흔히 찾는 여름 보양식들! 우리나라 사람은 왜 보양식을 즐겨 먹었을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겨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높은 기온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지친 체력을 보완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칼로리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보양식을 즐겨 먹었다.

보양식은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평균적인 지방 함량은 총 에너지의 20% 정도지만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같은 보양식은 30%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은 철따라 이런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영양 과잉시대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복날 다함께 보양식 먹는 분위기에서 혼자만 빠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냥 보양식을 즐기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보양식의 고칼로리와 고지방이 은근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1인분으로 나온 양을 전부 섭취하기보다는 70% 정도의 양만 섭취하는 것도 요령이라면 요령. 대부분 보양식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성분 또한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삼계탕 같은 경우, 닭 껍질 부위에 지방이 많으므로 껍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간경변 환자의 경우, 고단백 식사는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 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요독증이 있는 경우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담석이나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 통풍 환자도 고단백, 고지방 식사 섭취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과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먹거리가 풍부해진 요즘, 여름 보양식에 대한 개념도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의 전통 보양식보다는 닭가슴살, 수육 같은 담백한 고기나 하루 5가지 이상의 야채나 과일 같은 신선하고 상큼한 보양식은 어떨까?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이런 웰빙 보양식으로 삼복더위쯤은 거뜰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월간 <세브란스병원>

『사랑의 상각 끈의』 행복

<1월~6월>

○ 자원봉사로 수고 해 주신 분들

김수이 임선희 김인숙 김진옥 한선희 노명숙 손금란 박선옥 장미숙 서주영 송혜자 정정운 윤기숙 최성임

○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

김진희 윤정섭 박인호 이미영 장현순 김미경 김용구 곽은주 전희재 이선주 정미숙 김연배 박은미 박준태 이용섭 박준태 권순미 민경애 송혜자 정 민 박인숙 신혜영 유해조 이선섭 이한진

○ 물품지원 등 감사드립니다.

• 물품후원

HARU베이커리(빵, 케익) / 아산시푸드뱅크(부식 및 간식) / LG생활건강 (화장품외) / 충남사회복지협의회(생필품외 부식) / 충남여성복지협의회(건강생활용품외) /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건강생활용품 외) /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여성용품) / 사회복지협의회(생필품) / 금강씽크공장(대표 임연숙) (씽크대 교체사업)/ 아산시 희망봉사단(주거환경 개선사업)

○ 자원봉사 안내

- 일주일에 반나절씩 사무 또는 장애인 학습과 성인형극 도움을 주시는 아름다운 봉사자
- 대 상 : 연령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후원 안내

- 의류, 식품, 문구, 생활용품,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기증해 주시면 유용한 도움이 됩니다.
- 기부금/후원금을 약정해 주시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여성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계좌 안내 ◆

농협 : 465-01-178198 예금주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적 치료, 검사, 진단실시

상담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집단상담(특수학교,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관)

상담전화

- 상담전화 : (041) 541-1514 / 1515
- 팩 스 : (041) 541-1516
- 홈페이지 : www.asvcc.or.kr

찾아오시는 길



상담소를 찾아오실 때 :

900번, 901번, 910번, 911번,

920번, 921번, 940번, 950번 버스

전철1호선 → 온양온천역 광장 방면 출구 이용

31511 충남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0-14 LK빌딩 2층

TEL : 041-541-1514 / 1515 FAX : 041-541-1516